

일상을 통해 본 부산지역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세계*

Information World of the Urban Poor in Busan Metro Area as Viewed Through Their Everyday-Life Experiences

장 덕 현(Duk-Hyun Ch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3. 관련 연구의 동향 |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III. 일상과 정보세계 |
| 2. 연구의 목적 | 1. 일상적 공간 |
|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 2. 정보세계 |
| 1. 연구의 대상 | IV. 결 론 |
| 2. 연구의 방법 | |

초 록

이 연구는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도시 저소득계층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정보'를 매개로 조망하고자 한 조사연구이다. 자료는 기초적인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부산지역 A, B, C지역 저소득계층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행태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정보빈곤 현상과 정보행태의 소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증함으로써, 도시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 농어촌 지역 주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정보세계에 노정된 소외의 양상을 밝히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태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 일상적 관심사의 유형과 대처 방식, (2) 일상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대상, (3) 일상의 영위를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기 위하여 그들이 이용하는 매체의 유형과 특성 등의 범주를 다루었다.

주제어: 정보소외, 정보격차, 저소득층, 소외계층

ABSTRACT

This study intends to portray the everyday lives of the urban poor in Busan metro area, especially in terms of the information perspective. Employing basic qualitative data collection tools such as interviews and participant observation, the study attempts to illustrate such phenomena as information needs and behaviors, and to scrutinize the reasons of particular behaviors in information seeking and gathering. This paper, specifically, focuses on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need and information-related behavior of the urban poor; types of everyday concerns and ways to cope with such concerns; types of the help providers;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channels of everyday information seeking and information gathering. The role that interpersonal sources play in their everyday lives, has been emphasized in reality of their information environment along with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related behaviors including information gathering and information seeking.

Key Words: Information Alienation, Urban Poor, Digital Divide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과제)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dchang@pusan.ac.kr)

• 접수일: 2006년 11월 30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11일 • 최종심사일: 2006년 12월 21일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정보화는 이미 사람들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산업과 경제영역을 기반으로 눈부시게 발전해 온 정보통신기술은 그 역사의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발전시켜 온 다른 어느 기술보다도 빠른 속도로 파급되고 있다. 정보시대의 얼굴인 휴대전화, 컴퓨터, 그리고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 등 정보통신기술의 이기(利器)들은 이미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생산성을 높여주고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로부터 혜택을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간의 격차를 확대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문명의 이기들이 일상생활 영역 곳곳에 이르기까지 확산되고 보편화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접근권(access to information)의 확보 여부에 따른 사회 계층간의 분절화가 심화되는 부작용 또한 관찰되고 있다. 더욱이 정보 운용능력(information literacy)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인식되면서,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재의 정보유통 구조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소외 양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더욱 절실한 시점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보생태(information ecology)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정보 이용자에 대한 시각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약요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현재까지 학계의 주된 연구대상은 우선 주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이용하는 계층(the established)이 주가 되었으며, 학력이나 직업 등의 명시적 특징이 주요 변수로 다루어져 왔다. 또, 정보격차에 대한 관점은 주로 정보화의 실적에 집중하여 실질적인 정보소외의 양상에 접근하는 데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정보화와 관련된 연구와 논의들은 아직 사회적 소외계층을 주요 변수로 다루지 않거나, 소외계층에 대한 논의 역시 단편적인 정보화수준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정보의 유통과정과 정보 이용의 문제에 천착하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우리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적 이용자가 아닌 잠재적 이용자로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시각을 전환하고, 표면적인 정보화 지수를 넘어서 보다 실질적인 정보소외의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특정의 공간에 거주하면서 그 공간을 매개로 일상을 영위하는 정보화 취약계층인 도시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을 분석한 질적연구이다. 분석의 도구는 채트먼에 의해 이론화된 빈곤층의 정보행태 분석 범주¹⁾를 사용하였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부산지역 저소득층에게 있어서 그들의 일상을 영위하는 공간이 지니는 의미와 한계를 살펴보고, 그들이 일상적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보를 어떻게 찾아다니고 입수하고 이용하는지 그들의 정보행태 전반에 대한 양상을 조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에 노정되어 있는 정보소외의 양상을 심층적으로 그려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정보 서비스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대상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도시 저소득층은 부산지역에서 건설교통부 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속하는 지역을 선정하여, 이 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만 2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연령의 성인 인구에 한정하였다.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가장 많은 부산지역에서 서로 인접한 A, B, C 지역을 조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2001년부터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불량주거지 정비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선정한 지역으로 전국에 496개 지구를 선정하였는데 그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산에 126개 지역이 해당되어 있다. 이들 지구는 대부분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주택상태가 열악한 지역 특성을 지니며, 전국에 산재한 이른바 달동네와 산동네, 정책 이주촌 등이 포함된 노후 불량주거지로서, 주로 도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표 1〉은 연구대상이 된 지역의 개관을 나타내고 있다. 표에서 보듯이 부산 이들 지역은 인접지역으로 상기 건설교통부 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속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특히 부산지역의 도시계획으로 인한 강제 철거민을 위한 정책이주촌인데, 정책이주가 있을 때마다 산을 깎아서 주거지를 조성한 탓에 낮은 지역부터 높은 곳으로 1차에서 5차에 이르기까지 주거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도시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반면 상대적으로 저지대인 1차지구를 중심으로 도로

1) Chatman, Elfreda A.,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rs,”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Vol.47, No.31(1996). pp.93-206.

와 상업시설이 편재되어 있다.

〈표 1〉 연구대상 지역 개요(2005년 말 현재)

지역구분	면적	세대수	인구수	특징
A	0.36km ²	4,543	12,640	주거환경개선 지구, 4층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정책이주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함.
B	0.40km ²	5,440	15,565	주거환경개선지구와 일반 주거지역, 상업지역, 정책이주지역 혼재. 도로변 상업지역에 공공도서관이 있음.
C	0.62km ²	2,958	9,426	상업지역과 일반주거지역 및 소규모 공장 위주의 준공업지역.

2. 연구의 방법

가. 연구방법

소외계층의 정보에 대한 요구와 인식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의 프레임워크를 따르며, 사회적 소외계층과 같이 표준적인 방법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연구대상의 생활세계를 형상화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첫 단계는 관련 문헌을 분석하는 것이었는데 문헌 분석은 두 가지 영역에서 진행되었다. 우선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연구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선행연구가 다루는 연구문제(problem)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연구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가령 경제적 요인, 계층, 성별, 거주연수, 교육수준, 직업 등과 같은 주요 변수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한국전산원의 [국가정보화백서],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나온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등 정보화실태관련연구와 원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주요한 계량적 데이터를 확보하여 주요변수와 조건별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병행되었다.

나. 자료수집

조사연구의 바탕이 되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 속하는 지역의 리스트를 확보한 후, 연구대상 지역을 동단위로 추출하고 서로 인접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다단계추출 추출법을 이용하여 통/반을 추출한 후 주민들의 인적 자료(demographic data)를 조사하고 정보환경 데이터 등 연구대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하였다. 여기에는 공공 정보서비스 이용 조사 지역, 행정기관, 공공도서관 및 사회복지관 조사 기존 정보화 프로그램 현황 조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입수된 문헌자료를 분석하면서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서의 문헌의 내용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적 행위를 구성하고 매개하며, 사람들의 사고와 관심과 의미가 담겨있는 현실적 표현 도구로서의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전반을 통하여 연구대상 지역을 반복적으로 방문하면서 연구대상들과의 감정이입(empathy)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양상과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로 참여관찰과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통하여 연구대상의 행동패턴을 관찰하며, 나아가 그들의 생활양식과 의식, 감정, 신념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다.²⁾ 면담은 우선 응집된 특성과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집단을 선정하여 대상으로 삼고, 이어서, 연구참여자가 다음 면담자를 추천하고 다음 면담자가 다시 다음 면담자를 연결시켜주는 누적표본추출방법인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을 통한 면담을 시행하였다. 또한 전 과정에서 현장기록(field note)을 유지하고, 면담기록은 녹취록(transcript)을 작성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자료수집은 2004년 4월부터 11월말까지 8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먼저 예비조사를 위해 연구팀이 소재한 인접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질문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우선은 공공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B지역을 먼저 방문하여 공공도서관 사서를 통하여 지역에 대한 정보와 주민들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고, 도서관 이용자와도 간단한 인터뷰를 하고 보다 심층적인 면담을 위하여 신상정보와 연락사항을 확인하였다. 공공도서관을 방문하면서 도서관 위치와 시설, 그리고 문화강좌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확인하였으며, 인터뷰³⁾와 최종인터뷰⁴⁾의 전 과정을 녹음하고 이후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연구대상과의 만남이 예비조사이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되면서, 우리는 예비조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주로 최소 대학원생 이상의 '고학력자'들 그리고 이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이웃사이더들로 구성된 연구팀으로부터 느끼는 거부감과 그들에 의하여 진행되는 면담자는 '형식',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다 자연스러운 맥락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대화나 관찰기록 등을 현장노트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을 모두 녹취형태로 변환하였다.

다. 자료분석

이어서 자료를 분석하고 코딩(coding)작업을 진행하였다. 코딩은 현상의 내면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개념, 장면 등을 조사하여 일정한 코드를 부여하여 자료를 범주화하는 작업인데, 일반적으로 우선 개방적 코딩(open coding)을 통하여 가용한 범주들을 열거한 다음, 중추적 코딩(axial coding)을 통하여 몇 개의 중심 범주들을 설정하고 주변 범주들을 수렴시켜 검토한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채트면이 설정한 빈곤층의 정보행태를 규정한

2) Bogdan, Robert C. & Sari Knopp Biklen(1992).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3) 면담은 구조화된 설문을 가지고 연구자가 물으면 피면담자들이 답을 하고, 그것을 다시 연구자가 기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4) 최종인터뷰에서는 그들의 일상적 정보요구와 정보접근채널을 조사하고, 더불어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하였다. 비구조화된 설문을 가지고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4개의 범주를 중심축으로 사용하였다. 채트먼은 빈곤계층의 정보행태를 통해 그들의 삶을 설명하는 ‘이론의 개발’에 집중하여 위험감수(Risk-taking), 은둔성(Secrecy), 상황에 따른 필요(Situational Relevance), 속임(Deception) 라는 4가지 유형을 범주화하였다.⁵⁾

채트먼에 따르면 “빈곤계층은 어떤 정보가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와 두려움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경향을 보이며(Risk-taking),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었을 경우 불이익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정보공유를 꺼리며 개인적 경험을 드러내지 않고 소극성을 보이며(Secrecy), 앞으로의 희망보다는 자신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하여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고(Situational Relevan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보다 나아 보이거나 사회의 규범에 적합한 사람, 즉 인사이더로 보이기 위해 거짓을 말하는 경향(Deception)이 있다. 채트먼은 이와 같은 ‘인식의 문제’가 그들을 그들만의 작은 세계(small world)로 고립시키고, 외부의 유용한 정보로부터 소외시키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보소외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주장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채트먼이 제시한 4개의 범주를 중심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정보세계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3. 관련 연구의 동향

최근 들어서 정보화 소외 계층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아직은 국내 문헌정보학계에서 정보소외 문제에 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한편 서구의 정보요구와 행태에 관한 연구들이 최근 들어 보통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로 관심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⁶⁾ 이러한 연구는 1970년대 이후에 나타났는데, 이 시기부터 일반시민의 정보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주로 개인이 그들의 정보환경에서 어떻게 정보를 이용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들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고, 어느 정도 요구를 충족시키는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정보환경이 열악한 사회적 소수자나 소외계층의 정보환경과 정보추구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빈곤층이 연구의 대상으로 표면화되었다. 정보소외 연구의 선구자인 채트먼(Chatman)은 빈곤층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원을 얼마나 신뢰하며, 이들 정보원은 빈곤층에게 얼마나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이들이 인쇄

5) Chatman, Elfreda A. 앞의글.

6) 이와 관련하여 해리스(R. Harris)는 문헌정보학계의 정보추구행태관련 연구가 주로 도서관 혹은 데이터베이스 같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혹은 서로간의 토론과 저술에 의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정보를 추구하는 학자와 과학자들, 전문가들 사이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례로 1966년 이후 *Annual Reviews of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에 수록된 3000개의 아티클, 단행본, 보고서 중 95% 이상이 학자, 변호사, 엔지니어, 학생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직업관련 혹은 연구관련 정보요구를 다루고 있음을 지적한다. Harris, Roma M. (1994), *Barriers to information*, Greenwood Press, pp.8-9.

미디어를 선호하고 신뢰하는 반면, TV에 대한 신뢰성은 낮으며, 직접적 경험을 지닌 사람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를 가장 신뢰한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는데, 이는 빈곤층이 인쇄자료를 거의 이용하지 않고 텔레비전 이용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을 뒤집는 것이었다.⁷⁾ 결국 저소득층이 자발적인 정보이용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외부 정보원이 그들의 일상생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⁸⁾ 사회적 소외계층이 정보를 수용하고 회피하는 이유가 사회적 환경에 기인한다는 것이다.⁹⁾

한편 이러한 연구 스펙트럼의 다양화에 따라 사회적 소외와 사회정보장애의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노력도 가속화되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정보문제에 대한 연구의 대상이 가정폭력 피해여성,¹⁰⁾ 여성동성연애자,¹¹⁾ 노숙자,¹²⁾ 여성 장기복역수¹³⁾ 등 보다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정보문제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헌정보학의 관심도 절실하다. 과제는 소외된 삶의 정보세계에 접근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정보의 의미를 밝히고 현재의 정보수준을 규정하며, 그들이 정보를 획득하고 이용하는 양상을 분석하여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공공도서관과 같은 공적 정보서비스의 확충을 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필요로부터 이 연구는 출발하고 있다.

Ⅲ. 일상과 정보세계(information World)

1. 일상적 공간

이 연구는 도시 저소득층의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정보세계를 그리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소재

-
- 7) Chatman, E. A., "Information, Mass Use and the Working Po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7(1985), pp.97-113.
 - 8) Chatman, E. A., "life in a small world: Applicability of gratification theory to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1991), pp.438-49.
 - 9) Pendleton, Victoria E. & Chatman, E., "Small World Lives: Implications for Public Library," *Library Trends*, 46(1998), pp.732-52.
 - 10) Harris, Roma et al., "Searching for help and information :abused women speak out,"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 Research*, 23(2001), pp.123-41.
 - 11) Harris, Roma & Creelman, Janet, "Coming Out : the Information Needs of Lesbians," *Collection Building*, 10(1990), pp.37-41.
 - 12) Hersberger, Julia(1998), *Everyday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ources of Homeless Parents: A Study of Poverty and Perseverance Unpublishe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13) Chatman, E. A., "A theory of life in the round,"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1999), pp.207-217.

한 도시 저소득층 거주지역인 A, B, C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질적 사례연구(qualitative case study)의 수행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도시저소득층은 단순히 경제적 여건을 기준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 공간에서 일상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즉,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공간뿐 아니라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실제로 소유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 연구대상 지역인 A, B, C는 철거민을 위해 개발된 동네다. 15평이 넘지 않는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골목은 어른 한 명이 양팔을 벌리면 양 끝이 닿을 정도로 협소하다. 아래에서 위로 뻗어진 이 골목들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주택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편으론 반듯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 정책이주촌이다 보니 초기 정착민들부터 도로에 가까운 아래쪽에 정착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에 이주한 사람들이 그 위쪽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사 온 사람들은 다시 그 위쪽에 사는 식으로 동네가 조성되었다. 가장 먼저 조성된 제일 낮은 쪽을 보통 1차 이주촌, 줄여서 1차라고 부르고 가장 높은 곳에 조성된 이른바 달동네를 5차라고 부른다.

큰 도로로부터 동네 안쪽을 처음 방문한 우리 연구팀에게도 이 지역의 첫인상은 침울하고 어둡다는 것이었다. 마치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혹은 아래서 위로 향하는 굴곡이 있어 그런지 위태로우면서도 한편 고착된 느낌이 들었다. 실로 이상하게도 비좁다는 느낌이 들면서도 한편 촘촘하게 내려앉은 집들을 올려다보며 오히려 넓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해 전에 인터넷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통하여 이 지역의 조성배경과 현재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A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곳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산을 깎고 집을 지은 5차라는 신동네까지 올라가면 그야말로 고스란히 80년대가 남아있기도 하다. 그래서 처음 우리 동네를 방문한 사람들은 마치 흑백영화 속에 들어왔거나 미로게임을 하는 듯한 착각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이곳 우리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이 블루칼라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IMF 환란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근처 **공단을 삶의 지렛대로, 계속되는 재건축을 밥벌이로 삼아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유흥업소도 서면, 남포동을 방불케 할 정도로 성업 중이었다. 그 당시 성업 중이었던 건 유흥업소만이 아니다. 이른바 '점집'이란 것도 성업 중이었다. 시장 근처 한 골목을 아예 점집들이 장악하고 있기도 했다. 점집들은 대부분 '총각도사', '처녀도사', '장군집', '아기장군', '보살집' 등의 저마다의 캐릭터를 살려 간판을 내걸고 있었고 문 옆으로는 어김없이 플라스틱 대나무가 꽃혀 있었다.¹⁴⁾

14) 익명, 작은 대한민국, 부산 A에 살면서, ohmynews(<http://www.ohmaunews.co.kr>)

이 동네는 유난히 세 가지가 많다는 뜻에서 ‘삼다동(三多洞)’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 첫째가 ‘아이’들이고 둘째는 ‘백수’들이고 셋째는 ‘개’들이었다. 아이들이야 “신혼부부, 동거부부, 미혼모 할 것 없이 모여들었으니 당연한 일이고 백수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보니 일하는 사람보다 노는 사람이 더 많은 데서 연유한 결과”¹⁵⁾라고 한다. 또한 “좁도둑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비상식량인지 개 짖는 소리가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¹⁶⁾고도 한다.

그렇게 ‘삼다’의 본향임을 자랑하던 이 지역도 어느 순간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사람들은 ○ ○ ○ 씨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이러한 변화가 생겼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 하루 걸려서 나오던 수돗물이 매일매일 나오기 시작했고 허름한 스테이트 집들 가운데 빨간색 벽돌집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5차까지 소방도로가 뚫리고 낮은 곳에는 자동차가 주차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산 위로 자꾸만 올라가야 했고 조금씩 넉넉해진 사람들은 평지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큰 길과 시장을 사이에 두고 가난한 이들 사이에도 차이와 거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큰길가를 중심으로 유흥업소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렇게 형성되고 변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 부산 A, B, C 지역이다.

2. 정보세계

가. 위험 감수(Risk Taking)

도시 저소득층의 일상 속에 누적된 고민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고민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이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우리사회의 일반적 고민이 여전히 이들의 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자녀 교육과 이에 따른 생활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많이 표현되었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위험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의 환경이 불안하고 불만스럽기는 하지만, 마음만 있을 뿐 이 지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나 구체적인 정보를 찾고 있지는 않았다.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이 동네를 벗어나서 새롭게 낯선 곳에 정착하는 모험”은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한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생활의 편의와 복지를 위한 기회들도 오히려 포기하는 경향이 적지 않게 관찰되었다.

예를 들어 근화씨는 순진해 보이는 인상의 38세의 주부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전부이며, 현재 남편, 초등학교 3, 4, 6학년인 가족과 함께 C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약간의 언어장애가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며 남편에게 시집을 오면서 서동에서 계속 살았다. 그러나 낮은 학력과 장애 때문에 제대로 된 직장은 구하지 못하여 현재 지역 복지센터에서 일용직(하루 일당

15) 위의 글.

16) 위의 글

2만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남편 또한 비슷한 일을 한다. 이 두 사람의 수입을 합쳐도 105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자녀교육은 학교만 겨우 보내는 정도일 뿐 주변의 무료 야학이나 공부방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주 5일 근무에 6시까지 일한다.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며, 원래는 신발공장에서 일하였지만 부산지역의 신발산업이 침체되면서 실직하였다고 한다. 가능하다면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알음알음으로 소개해 준다면 모를까 실제로 직업을 찾아다닐 힘도 시간도 없다고 말한다. 복지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청소와 도시락 서비스이며, 교통편이 불편하기 때문에 걸어서 통근을 했다(40여분 정도 소요). 이 동네가 살기 불편하고 이웃과도 별다른 교류가 없지만 달리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날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현재의 직장을 소개받았으며 1년 정도 일을 했지만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옮기고 싶어 한다. 그러나 마땅히 어디에서 취업관련 정보를 얻어야 할지 막연하다. 더욱이 주위 사람들과 친분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며, 집-직장만을 왔다갔다하는 생활을 하다보니 새로운 직장을 소개받기도 어렵다고 느낀다. 역시 가장 큰 고민은 경제적인 문제이다. 희망하기는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바라지만, 가계의 수입이 너무 적다보니 자녀 교육을 위해 저축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해 걱정이 많다. 주로 교육비와 식비가 많이 든다.

구독료가 부담스러워 신문을 보지 않고 지역정보지도 보지 않기 때문에 “구인”에 대한 정보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은 남편뿐이며, TV는 편하기는 하지만 별로 믿을만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컴퓨터를 통해 정보도 얻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근화씨는 아래의 이야기와 같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있었다.

딸 아이가 실명을 해서 현재 장애 6급인데 보조금이 안나온다. 왜 안나오는지 모르겠다. 동사무소를 가 봐야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걱정은 많지만 하루하루를 넘기는 것이 삶의 모든 부분을 접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는 스스로 포기하고 적응해 버린 삶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그들은 정보의 바다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운 형편이었다.

나. 은둔성(Secrecy)

채트먼의 두 번째 범주는 자신을 드러내는데 대한 소극성과 그로 인하여 은둔적 경향을 보이는 행태에 관한 것이다. 이는 세월을 두고 검증된 인사이드(insider)가 아니면 좀처럼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태도로 이어진다. A지역 주민들(주부들)에게 있어서 의사소통과 사회화의 주된 장

은 동네 미용실이었다. 동네 미용실에서 만나곤 하는 아주머니들의 관심사는 주로 자녀교육이었다. 딸 이야기며, 아들이야기들이 끝이 없이 이어졌다.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우겠다는 의지 또는 자식만큼은 제대로 키웠다는 자부심이 보였다. 희망을 투사하는 듯 하였다. 억지스럽게 정보며, 정보화며 이야기하지 않으며 생활의 단면을 파악하였다.

이곳에서 만난 수미씨는 35세의 전업주부이다. 가구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는 남편과의 사이에 초등학교 5학년 딸 하나를 두고 있다. 수미씨 역시 처음에는 좀체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서 상당기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며 현재도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미용실 주인 아주머니가 귀뜸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속내를 열고 연구팀에게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곤 했다. 미용실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외에는 알고 지내는 이웃도 없는데, 젊은 어머니들은 암체고, 자신의 이야기를 잘 안하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초등학교생인 딸과 무척 단란하게 지내,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온갖 이야기를 다 해준다면서, 딸과 이야기하는 것이 즐겁다고 했다.

인근 C지역에 살다가 현재는 A지역에 살고 있는데 1천만원 보증금에 월 12만원짜리 월세집에 살고 있다. 집 주인들이 전세 대신에 월세를 받으려고 한다는 데서 시작한 이야기가 월급은 적은데 쓸데는 많다는 이야기로 이어졌다. 수미씨에 의하면 이 동네에는 “나이 든 사람”들이 많고, “노는 사람”들도 많다.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 오히려 부업의 기회도 많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 학원비나 생활비 등의 물가도 싸서, 부지런히 돈벌어서 이 동네를 나가 아파트로 이사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말한다.

여기 사람들 대부분 다 도라지 공장에서 도라지 까 가지고 부자되고, 다 아파트로 이사간다 아닙니까. 도라지 다듬는 일은 잘 되는데, 요즘은 장갑공장은 잘 안되요. 경기가 안좋아서….

수미씨에게 최근의 가장 큰 관심은 건강과 교육문제에 있다. 건강은 꾸준히 병원에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로 마무리 지으면서, IMF 이후에는 미용실이 많이 는 것 같고 아래쪽에 술집도 많아져서 (미용실과 술집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교육환경이 더욱 나빠지는 것이 걱정이라고 한다.

큰 도로가 가면 다 호프, 술집입니다. 종점에만 가도 4군데나 되요. 그리고 조금 건너서 부산은행 쪽으로 가면 횡집, 고기집도 있고 요기 보니까 어떤 남자가 미친 사람처럼 술을 먹고 완전 길거리에서 들어 누워 자요. 집도 있으면서도, 집에 가서 안누워자고 미친 듯이 술을 먹고 길바닥에서 잔다니깐요. 그러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녀요... 일단 무서운 동네예요. 술만 먹어도 고이 먹고 미치면 괜찮은데 고이 안 먹고 미치니까 그게 문제죠.

아이가 자랄수록 교육환경이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걱정이 많다고 한다. 수미씨는 미용실에 “출근”한다고 할 정도로 미용실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 동네 미용실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사람들이 흥금을 터놓을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미용실 주인 아주머니(45)의 역할도 작지 않아 보였다.¹⁷⁾ 우리가 이야기를 마치고 수미씨가 떠난 뒤 잠시 손님이 뜸한 틈을 타 아주머니가 덧붙인다.

저 위에 살아... 사람이 참 착해요. 옛날에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그러가지고 우울증 약 먹어요. 한 5년 병원에 입원해서 뇌수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하고 이렇게 눈으로 보기도 느낌이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보는 그대로, 순수해요.

수미씨는 첫눈에도 착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다. 예전에 취미삼아 구슬공예를 조금 했었는데 다시 시작해 보고 싶지만 구슬값이 비싸서 아직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가 구슬을 끼우고 있는 모습이 막연하게 연상되었다. 또한, 둘째 아이(아들)를 가지고 싶는데, 몸이 아파서 딸이 다섯 살 될 때까지 돌보지 못한 탓에 육아경험이 없는 것이 걱정이다. 아이 키우는 방법 책을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근처 책방(대여점)에서 빌려 볼 생각이다. 초등학교 5학년 딸아이가 엄마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 듯 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소식통이며, 인식을 결정짓는 주요 소스인 듯 하다. 새마을 문고나 공공도서관, 혹은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 공공기관에 잘 가지도 않는다. 특별히 찾아갈 일이 없다고 다소 자르듯이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은둔적 성향은 표면적인 의연함이나 삶에 대한 달관적 자세로 이어지기도 하였는데, 예를 들어 반찬가게 주인 이씨의 경우가 그러하였다. 서글서글한 인상의 이씨는 올해 44세인데 C 지역에서 20년 이상을 거주한 터주대감이다. 작은 부식가게이지만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남편이 장사뿐 아니라 가정 일도 많이 도와주고 아이들(고3, 중 3)에게도 신경을 쓰는 편이라서 서로 서로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았다. 항상 가게에 나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적고 가게 손님들과 주위의 동네 사람들 말고는 특별히 만나는 사람이 없이 남편과 대화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C 지역에 친척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점으로, 맞은편의 “쌀쌀맞은” 슈퍼 주인도 사돈관계라고 했다. 대부분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동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반면, 같은 동네 사람과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생각되었다. 아들이 수험생(고3)인 탓에 자식들의 공부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현재는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살지만 몇 년 뒤에는 편하게 살 것이라는 희망

17) 폴리는 이러한 상황을 부족적 상황(tribal situation)이라고 칭하며, 사회적 소외계층 커뮤니티에 있어서도 마치 소수의 주민들로 구성된 부족사회에서의 부족장과 같은 정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Douglas E. Foley(1995). *The Heartland Chronicl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을 가지고 있었다. 시골에 물려받은 땅도 있고, 저금도 열심히 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알부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 지역이 교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잘라 말한다. 실제로 이씨의 자녀들은 버스로 통학하는 다른 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이씨에 따르면 이 동네아이들은 주로 실업계 학교에 많이 가는데 이씨의 아이들은 조금 떨어진 인문계학교에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 학원비 등 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고 할 때도 아주 싫지는 않은 약간의 너스레 같은 느낌도 들었다. 또한 동네에 친척들이 많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많이 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역이 생활하기 편하다고 한다. 다만 큰길가에 요즈음 들어 술집이 늘어나는 것이 환경을 해친다고 이야기 한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면 시골에 가서 살 계획이라고 한다. 가게에서 하루종일을 보내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늘 틀어놓고 있다. 남편이 주로 뉴스를 보고 이씨가 특별히 보는 프로그램은 없다. 텔레비전을 보는 이유도 주로 교육문제 때문에 “또 뭔가 바뀌나 싶어서” 본다. 텔레비전보다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더 신뢰하는 편이다. 신문도 보고 요즈음은 보험회사에서 보내주는 잡지나 ‘좋은생각’ 같은 읽을거리들을 보는 편이다.

다. 상황에 따른 필요(Situational Relevance)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지만 50대 장노년층의 관심은 건강과 노후생활의 안정성 확보, 3-40대의 청년층에서는 아이들의 교육과 경제적 안정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반면, 2-30대 청년층에서는 취업과 결혼에 대한 고민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었다. 특히,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참여에의 욕구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을 사회참여의 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각종 기관이나 단체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도시지역 저소득층의 경우 ‘일상적’ 고민은 삶의 물질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게 하였다.

경수씨는 올해 30세인 취업준비생이다. 전문대에서 컴퓨터 관련 공부를 하였지만 취직이 되지 않아 “백수” 생활을 하고 있으며, 무직 상태이니 결혼도 힘들어 고민이 많다. 선원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 그리고 누나, 형,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다. 다리가 조금 불편한 탓에 “취직 못할거고, 취직이 안되니 결혼도 못할거다”라고 자주 푸념하곤 했다.

집에 바로 도서관 근처에 있어서 지역 공공도서관에 매일 나와서 취업준비도 하고 간혹 책도 보고, 영화도 본다. 사실 27살 이전에는 도서관에 와 본적이 없다. 얼마전에 도서관에서 우연히 팜플렛을 보았는데 노동부에서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IT 관련 학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고는 곧 IT관련 학원에 다니려고 하고 있다.

영철씨는 민수씨와 어릴 적부터 알고 있는 동네 친구인데, 이곳 공공도서관에서 공무원시험 준

비를 준비하고 있는 30세의 남자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다녔는데 일이 힘들고 자기 생활이 없어 그만두고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 민수씨와 달리 영철씨는 이 동네가 싫다고 말한다.

시끄러워요. 밤이고 새벽이고~ 제2의 남포동 혹은 온천장이라고 우리끼리는 이야기합니다. 술집 많고 싸우는 사람도 많고.. 주변친구들이나 사람들 보면 서동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이사 가고 싶어요....

영철씨의 최대 관심사도 역시 취업이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 계속 취업공부만 하다보니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운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한다. 설새없이 건강정보를 쏟아내는 대중매체로부터 영향 받아 건강 프로그램과 먹거리에 대한 예를 많이 들었다.

라. 속임(Deception)

스핑크와 콜은 저소득층의 정보입수와 관련된 행태상의 특징을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외부채널의 이용은 지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⁸⁾ 빈곤층의 주요정보원의 중심부는 가정이며 가정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며 정보환경이 그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을 가족활동과 가족문제와 관련한 뉴스의 주요 정보원으로 간주한다.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므로 가족을 벗어난 다음 수준의 관심사는 물리적 안전이며 이에 대한 주요 정보원은 '이웃'이다. 다음으로 건강문제, 교육, 고용 순으로 그들의 관심사가 나타나는데 원중심부에서 멀어질수록 정보채널은 공식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수미씨의 경우도 주로 남편과 딸이 주된 정보원이었다. 일상적인 대화는 주로 딸과 많이 하는데, 남편의 경우는 주로 TV를 보면서 사건, 사고들을 보고 실제 생활에서 사고가 안나도록 조심시킨다고 한다. 경제적인 부분은 역시 남편에게 많은 책임이 모여있고, 집안에 있어서는 생활에 있어서는 안전문제가 최우선이었다.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 신랑이 사고가 났다던지, 비행기 충돌 사고, 기차 충돌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지하철도 불도 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보고 가스렌지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가스 밸브 잠그라고 하죠.

저소득층의 정보행태를 분석해 보면 추구(seek)하는 정보보다는 획득(gather)하는 정보가 많

18) Spink, A & Cole, C., "Information and Poverty : Information-Seeking Channels Used by African American Low-Income Househol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2001), pp.1-22.

은 것이 두드러진다. 말하자면 요구를 인지하고 역동적으로 찾아서 입수하는 정보보다는 우연히, 또는 무의식적으로 입수되어 기억 속에 저장된 정보가 많았으며, 이러한 일상생활의 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정보행태의 수동성은 누적되고 있었다. 학자들은 이러한 정보행태의 수동성이 결국은 가까운 곳, 혹은 자기 자신이 가장 익숙한 정보원에 대한 의존율을 높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채트면이 정의한 속임/민지 못함의 행태와 관련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이 주로 이웃과의 유대 관계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고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주로 사용하는 채널에 있어서 많은 연구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친지, 가족들이 여전히 강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었지만, 의외로 이웃에 대한 신뢰가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식당을 하는 임씨는 동네사람들이 늘 싸운다고 동네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다.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낮부터 술마시고 싸우는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고 말한다. “맨날 서로 헐뜯고 싸우는 거 같다.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자랑만 한다”고 덧붙인다. 미용실 주인 이주머니도 이러한 점에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특히 젊은 층과 젊은 주부들은 많이 속인다고 한다. 곁에 앉아 있던 수미씨도 이 대목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다소 의외였다.

눈에 보이게 속여요, 진실 있게 대화를 안 하죠, 외국에는 그러대, 자기 본심을 안 들여 놓는다고 하대요,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 가지고, 자기 속내를 많이 보인대요, 그게 틀린다는 거 아냐, 외국과 우리가 생각하는 차이점이지.

세대의 변화와 함께 어려운 경제사정, 사회 전반의 경쟁논리 등이 이 지역에도 여지없이 각박함을 몰고 왔는지 모른다. 이러한 태도는 50대 후반의 이씨에게서도 관찰되고 있었다. 이씨는 이 지역에서 18년째 거주하고 있다. 특정한 직업은 없으며 현재는 간간히 건설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씨를 만났을 때는 시장근처에서 햄스터를 팔고 있었는데, 이것은 집에서 키우던 햄스터가 새끼를 많이 낳아서 판다고, 그냥 용돈벌이 삼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남 1녀가 있으나 모두 분가하였으며 지금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자녀들이 따로 살다보니 특별한 지출이나 고민 거리는 없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요즘은 건설노동판에도 2, 30대 실업자들이 많아서 정작 자신은 일감을 구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일이 생겨야 나가는데... 요즘은 2, 30대 실업자들이 많아 그런데 정작 일은 잘 못하니까 안쓸려고 하거든. 그런데도 도와달라고 집으로 찾아오는 몇몇한 젊은 사람들이 있어.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인 거? 안도와주지... 왜냐하면 나보다도 젊고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도와주나?

이씨는 아직은 움직일 수 있으니 일을 하는데 “못움직이게 되면 시골로 가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 그러면서 시사라든지 정치 관련 이야기거리를 거론하기를 좋아하였다. 노후의 건강이 다소 걱정이라고 말은 하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자존감이 매우 강하고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는 태도가 몸에 배어 있었다.

그들은 그들이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도움을 요청하지도 도움을 주지도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끊임없이 과거를 반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이 강한 자존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짓이라거나 위세, 허위, 과장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측면에서 사람들 간의 불신이 깊어지기도 한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의 국외자(outsider)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이들은 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기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의 일상의 문제와 관심사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보를 이용한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알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관심이나 도움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여 정보공유를 꺼린다. 결국 빈곤층이 자신의 처한 문제상황을 숨기려 하는 것은 자기방어적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 이러한 빈곤층의 심리는 외부로부터 유용한 정보가 도달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정보빈곤과 정보소외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¹⁹⁾

IV. 결 론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도시저소득층의 일상적 생활세계를 ‘정보’를 매개로 조망하고자 하였다. 기초적인 설문조사와 질적 면담 및 참여관찰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연구의 대상이 된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일상적 고민과 요구의 해결을 위한 행동전략들을 잘 보여주었다. 저소득계층이 지니고 있는 일상적 정보요구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한 정보행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당면해 있는 정보빈곤의 실태와 이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제반 요인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정보빈곤 현상과 정보행태의 소극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자 하였다.

도시저소득층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탈북자 등 우리사회에는 여러 계층의 사회적 아웃사이드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 사회의 아웃사이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그들의 생활범주 내부에 존재하면서 그들의 생활을 이해라고 동감하는 사람들인 동

19) Chatman, E. A., “The impoverished life-world of outsider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7(1996), pp.193-206.

네사람(인사이드)과 외부사람(아웃사이드)의 경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 스스로 “이 동네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내부자들만을 신뢰하고 결속을 다지지만 실상은 그로 인하여 그들의 외부세계로부터의 고립이 더욱 심해지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국외자에 대한 경계심은 연구팀이 지역을 방문하던 첫날도 예외가 아니었다. 동네로 접어들자 사람들의 견제하는 시선이 느껴졌다. “우리는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썩 붙인 것도 아닌데, 용케도 이방인을 알아 맞추는 모양이었다. 우선 공간 파악을 위하여 두리번거리며 언덕을 오르는 내내 뒤에서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사진 한 장을 찍는 것도 죄스러우리 만큼, 어려운 분위기였다. 언덕을 내려오는 할머니가 잔뜩 경계심을 품은 눈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러 왔는고’라고 묻는다. 경직된 몸이 좀처럼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큰 도로에서 몇 발자국만 골목으로 조금만 접어들어도 쉽게 알 수 있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웅기종기 붙어 있는 집들과 허름한 떡볶이 가게, 불량식품을 파는 문구점, 과일들을 바닥에 늘어놓은 과일가게 등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단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집들을 살펴보았다. 문이 부서진 집들, 햇빛이라고는 전혀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집들, 비좁은 자리에 용케도 들어선 집들이 어렵지 않게 눈에 들어왔다. 전세 천만원 가격의 방이 있다고 붙여 놓은 누렇게 변해버린 전단지, 좁은 골목길에 앉아서 미니리에 고추장을 묻혀가면서 술을 한 잔씩 걸치고 계시는 할머니, 아주머니들도 쉽게 보던 모습은 아니었다. 조그만 가게는 사람들의 모임터가 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상하게만 보이는 것 같았다.

길을 걷다가 흰머리를 뽑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만났다. 그 중 몇 분이 설문에 응해주었다. 경제며, 건강이며 관심사를 이야기하면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별 것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이야기를 했다. 내 삶이 고단한 이유에 정보문제를 갖다대는 것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였다.²⁰⁾

‘정보’가 그들의 일상에서 그 어떤 의미도 되지 못한 다는 것,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않다는 것, 그것을 향한 그들의 태도에 그 어떤 절실함도 묻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하여 그것을 취할 수 없는 상황 또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핍, 또는 부족의 상태가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아 알 수 있었다. 세계는 정보화사회로 치닫고 있는데 그들은 정보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제 아무리 눈앞에 유용한 정보들이 넘쳐나도 그들은 그들 자신과 주변만을, 남편을, 자식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구 전반을 통틀어 우리는 우리 이웃에 살면서도 눈에 잘 띄이지 않았던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일상적 삶, 삶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 등 삶을 지탱하는 여러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신의 아픈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강한 자존심과 삶에 대한 의지 그리고 “아파트로 이사가는

20) 한혜경, 최고운, 임신영(연구보조원). 현장일지(2004. 4. 10).

것”으로 상징되는 삶의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사회 참여에 대한 호기심과 의욕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자잘한 일상의 파편들을 하나로 이어가면서 우리는 그들의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바라보는 시각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들의 성향들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고민들을 해결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체념하거나 포기해야하는 경험에 익숙한 탓에 그들은 자신이 당면한 현재의 문제들을 어느 정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조차 담담하게 수용하고 있었다.

요컨대 소외계층의 정보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으며, 그들 스스로가 정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의 주류가 아닌 주변부에서 일상적 삶을 영위한다고 해서 그들의 경험세계가 빈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다른 구성원들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을 통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공유하는 “일상적 지식”들을 축적하게 된다. 이러한 지식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체계화됨으로써,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위기와 도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기능한다. 이렇듯 그들의 정보세계와 그 속에 녹아있는 삶의 전략들을 이해함으로써 저소득 도시빈민들의 정보소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연구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²¹⁾ 이를 통하여 도시 저소득층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그리고 사회복지관과 같은 공공 정보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²²⁾

참 고 문 헌

- 김정근. 학술연구에서 문화기술법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울, 1998.
- 김정근, 장덕현. “문헌정보학에 있어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함의.”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0(1999. 6), pp.55-75.
- 윤일성. 도시개발과 도시불평등. 서울: 한울, 2002.
- 이제환, 이연옥, 장덕현. “소외집단에 대한 정보행태 연구의 방법론적 특성.”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5(2004. 6), pp.273-295.
- 장덕현, 임신영. “지체장애인의 정보소의 양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6(2005. 12), pp.89-108.

21) Spink and Cole, (2001).

22) Ann Bishop et. al., “Public Libraries and Networked Information Services in Low-Income Communit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1999), pp.361-390.

- 정보통신부 외. 제 2차 정보격차해소 종합계획(2006-2010).
- 조용완. “북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2006. 9), pp.325-356.
- 진양교.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 일과 시장, 그리고 유곽.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8.
- 한국전산원.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종합방안 연구보고서. 2001.
- 한국정보문화센터.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도시영세민. 2002.
-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3 저소득층 정보격차 실태조사. 2003
- Atkinson, Paul & Martyn Hammersley. “Ethnography and Participant Observation,” Norman K. Denzin & Yvonna S. Lincoln ed.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1994.
- Behar, Ruth. *A Vulnerable Observer: Anthropology that Breaks your Heart*. Boston: Beacon, 1996.
- Bishop, Ann P. et. al. “Public Libraries and Networked Information Services in Low-Income Communitie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1(1999), pp.361-390.
- Civille, Richard. “The Internet and the Poor.” Kahin, Brian and James Keller ed. *Public Access to the Internet*. Cambridge, MA: MIT Press, 1995, pp.175-207.
- Carey, Robert F. et. al. “Gaining Access to Everyday Life Information Seeking.”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2001), pp.319-34.
- Chatman, Elfreda A. “Information, Mass Media Use and the Working Po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7(1985), pp.97-113.
- Chatman, Elfreda A. “Life in a Small World: Applicability of Gratification Theory to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42(1991), pp.438-49.
- Foley, Douglas E. *The Heartland Chronicl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5.
- Hall, Peter M. “The Contingent Constructed Nature of Social Life: Suggested Implications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1990), pp.139-47.
- Harris, Roma and Patricia Dewdney. *Barriers to Information: How Formal Help Systems Fail Battered Women*. Westport, CT: Greenwood, 1994.
- Hersberger, Julia A. *Everyday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ources of Homeless Parents: A Study of Poverty and Perseverance*. Bloomington, IN, Schoo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diana University, 1998.

Pendleton, Victoria E. M. and Elfreda Chatman. "Small World Lives: Implications for Public Library." *Library Trends*, 46(1998), pp.732-52.

Spink, Amanda and Charles Cole. "Information and Poverty: Information-Seeking Channels Used by African American Low-Income Households."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23(2001), pp.45-65.